



박 병을 선생

본명 - 박 니까노르 예밀리아노비치.

1906년 11월 5일에 원동연강 수청구역 신영동에서 박근만의 5남으로 탄생하였다. 박선생의少年시대인 1915-1923년 경에는 이 시대에서 고려인 애국자들의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여 그 애국단체들의 영향은 박선생에게도 많이 미치게 되었다. 그 애국자들 중 정재관, 우덕순, 유동화, 조동선, 조응순, 김응열, 김인세, 박정격 등 원동에서 유명한 애국자들은 종종 만나 보기도 하고 그들의 신부림도 많이 하였다. 그들에게서 애국열사 단증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며, 자기로 때가 되면 그런 영웅적 위훈을 한번 발휘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1920년대 초기에 원동에 잠입하였던 일본군대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한하여 조선에서와 같이 가진 악행을 감행하면서 3.1만세 사건에 참가자들라 함일 단체 참가자들을 쫓겨 추방하였다. 이를 위하여 많은 한인 청년들은 미신을

집을 떠나 만주나 시베리로 가서 새로 조직된 공산군²
 세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2년에는 일본 칩락군은
 노련군에게 완전히 패망당하고 원동으로 불어 월화하
 게 되었다. 그 후 1925년에 원동 블라지보스토크에 한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던바 박선생은 수형구역 모범 청년
 사업활동가로써 그 회원에 파견받아 1929년에 그 학
 원을 훌륭한 성적으로 필하인 원동을 떠나 타슈켄트
 교대 수물리에 입학하였다. 타슈켄트에서 3년간 공부
 하는 사이에는 타슈켄트 연립위원회내에 조직된 고려인
 학생지대에서 처음에는 열성자로 일년간 단니다가 다음
 그 학생지대의 책임자로 일하였다. 그 당시 타슈켄트 근
 방 주로 상철칙 구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주로 채소
 농사에 종사하였다. 그의 농인원은 불과 50명을 초과 하고
 많았다. 1932년에 교대를 타감한 박선생은 다시 지
 기 교향 원동에 돌아가 시영동 중학교에서 물리수학
 선생으로 1937년, 원동으로부터 한인들의 전반적 어둠
 때까지 일하였으며, 이강제 이유로 인하여 박선생은
 이미 청년시기에 와서 공부할 사람이 많이 들어 단 4년 타슈
 켄트에 도착하여 상철칙, 및 중철칙 구역들에 도교육부의
 파견을 받아 단 4년서 계속 중학교들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
 하였다.

1946년 말에 우르베크 공화국, 교육성의 명령에 따라,
 타슈켄트 사대에 열린 교원특별강습소에서 반년 동안
 공부하고 북한에 노어교원으로 파견되었다. 1947년 7월
 에 북한에 도착한 박 선생은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
 가 지르하든 대남공작원 강습소에서 교원으로 일하였다. 1949년
 6월 불어 1952년 6월까지 대남사업부 직속 특수사업과장으

로 일하였던 (특수 산업이란 대남공작대를 무장화거위한
 군부특수 산업, 1952년 8월부터 1957년 6월까지 당중앙위원
 회 대남사업부 직속 강동학원 (대남공작원 학교) 원장으로
 계시다가 1957년 초순부터 사삼전호(초순부터 중풍에 걸렸다.
 박병을 선생에게 허술잡고 싶습하라고 따진 것은 - 공화
 국을 반대하여 로동당 중앙을 반대하는 어떤 지르를 허가하
 와 박창욱에게서 받았는데, 왜 남한 공작대 사업이 전혀
 파한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왜 남한 공작대원들은 남한에 나가
 1년 전부터 복합을 변질하고 전향하여 지하공작 사업에서 탈퇴하
 여 나오는가? 어찌하여 복합주의 남한을 전향하였을지 남한 연변
 은 폭풍을 일으켜 복합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박헌영과, 이응영이
 와 어떤 비밀 연락이 있었는가? 등 질문으로 변 한연 동안
 깊은 심문하였으나 황백영 박선생에게서는 복합을 반대하고 김
 일성을 반대한 어떠한 비공백한 지르도 발견되지 않아
 그를 강동학원장 직부에서 철직하여 부산성 경리부감 직부
 에 돌리었다. 당시 복합의 황백영 박선생에게 걸렸다가 공화
 사나니 하급직부에 발리위 나온 간부는 아무런 당적 정치적 가치
 도 없는 중급 나등급 대우에 돌리려 어느 보습에 가서던지
 원대를 받고 있었다. 박선생은 1957년 7월에 강동 학교에서
 나온 후 불어는 어디서던지 푸대접을 받았는데, 풍풍 열시 당하든
 일도 없었다. 그래도 귀중한 조국의 흥일은 막아 마는다고 생
 각하고 있었으나 초연화에 대한 열시의 풍고는 날이 갈수록
 더 감하여지고 있었다. 이 뒤쯤에 1959년 중순에 어른과
 당 중앙 위원회 간부부는 박선생 여러 농촌 협동 조합에 내
 려가 한 2년간 고생하네인 다음 선생의 일과 관 대하게
 해 결하여 줄 것이라곤 말라였다. 그러나 박선생은 일생에
 농촌 일이라곤 전혀 해 보지 않았고, 또 대학을 나온 아들

딸들을 데리고 농촌에 내려가서는 무슨 일도 하지 않았고, 여러
 자기 남의 씨름에 들고 있던 형제들에서 정회적으로 다시 노생한
 다 하여도 크게 해볼 일도 없었지, 또 어찌까지 5-6년 전부터
 허리에 내려보내사 랐은 랐으나 관대한 처리를 받고 다시 위로
 들 아 온 사 랫은 한 번도 앓을 뻔하려, 그 끝에 내려가 다시 처
 별 처단을 받고 노름당 열성분과 들에 뛰어 들은 일은 기수복이었
 다.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북향에 파견한 노생에
 들어가 그 노름당 앞집어들어 무 쫄겉어 배 응 감 제 노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완전한 생활이며, 정신상 위급도 뒤러하
 고 인정하되, 노생정부가 공립권 회복과 귀환을 허가하여 들
 것을 요청하였다. 노생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임즉 허가 공을
 평양까지 노생대사관에 발송하였다. 귀환은 노생정부에서 드
 허가 하였으나 노생에 돌아오는 여비는 무지 않고 자기비용으로
 가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절박한 열금생활을 하다 보니 여비는
 전혀 없었다. 하는 수 없어 전채 가족의 여유 의복들을 다 걸어 갔고
 평양 장마당에 나가 팔게 하여 겨우 여비를 마련 하여 모스크
 크바까지 무사 하 도 향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노생공산
 당과, 외무성의 방으로 임시사택도 마련하였지만, 아이들의
 공부물과 생활물과 취직물과로 해 결할수록, 막 2개월 후에는
 금가 해택에 의하여 모스크바 중앙에 4칸드리 사택까지
 무료를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장기간 당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였으나 마리악 시기에 대남사업 계획으로 내무성
 관리하여 속하는 계열에서 일하였던 이 들에 노생 귀환 후
 노생 내무성 13번군에서 내무부 경비국 계획에 취직보장을 받
 게 되었으나 구역중 경비과장급에 1988년까지 크 령하시고
 그 후 1년 조금 생활이 넘어 갔으나 계속 1970년까지 공투교
 경리보장 직물에서 지내었다.

박선생은 북한에 제실시 장기간 당중앙 위원회 대남사업부에서 일하였던데, 특히는 강동학과 교장으로 장기간 계셨기때문에 남한의 많은 간부들과 접촉이 많았으며, 부분적 간부들과는 말약에 남한에 가게되면 꼭 만나 보자고 약속까지 하였다. 박선생의 말뜻에 의하면 자기가 강동학원에 제실시 말하여도 약 3천 5백여명의 남한공작대원들을 파견하였다고 하셨다. 그들은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상 전파 사명을 받고 남한 할대쪽으로 산악지대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런 산악지대라든가 그들 어 무관행등을 용이하게 할수 있었으며, 각기들의 행동준절을 쉽게 간출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 별파최산부대요, 태백산, 설악산 등등 별파최산부대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북한에서 출발할시 우리와 다른 정복기지를 목표로 하여 떠날수 없었지만, 그러나 양식만은 떠러날 먹은것을 가지고 떠날수 없었다. 때문에 이들은 가는곳마다 화전편어나 촌락에서 좀 떨어질 곳에서 살고 있는 집들에 들어가 밥도 얻어먹고, 잔도자극하였다. 이것을 가르쳐 남한에철는 공비라고 부르되라 즉 공산비적어란 말이다.

1990년 8월 19일에 소련 모스크바로부터 18명의 연노환한인들이 "소련공화노인단"이란 이름으로 한국 문화방송 회사의 초청을 받고 서울에 가게 되었다. 18명중 가장 연노환분은 박병을, 한득봉, 강상호 선생들이였다. 노인단은 모스크바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일본 동경 공항에 도착한후 약 2시간 휴식하고 다시 동경-서울간 미군대 비행기 보잉 747형을 타고 15°시 경에 한국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때에 소련으로부터 왔던 노인단이 서울에 온다는 소문은 어디서 들었는지, 공화대합실 옆구에는 수십명의 신문, 라디오 기자, 사진기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노인단 첫꼬리가 정문에서 도착하자 사진들은 불을 번쩍이었고

신불라리오 기자들은 자기의 나이코를 노인들의 옆에 갔다라⁶
대고서는 어디서 오시느냐? 몇몇에반에 한국에 돌아 오시느냐.
갑상어 어떤항가등 질문들을 하였다. 노인단 성원들은 기자
들의 여러가지 질문들은 많이 받았으나 오래동안 사뭇하리
없이 거이다 몇몇질정도로 아득하게 머리쪽에 남아있
는 한편 처음부터 서울말씨는 더욱더 그물음의 내용을 리해
하기 어려웠다. 세상에 한생이후 처음 잠거리 비행
에 취해리 비행기에서 내렸으나 아직도 귀에서도 비행
기 소리가 뻤하고 울리고 있어 어떤 생동한 대답은 줄수
없었다. 노인들은 공황 대기실 널찍한 방에 한쪽의자 소
파등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그 자리들을 찾아가 앉아 휴식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일부 근방 약 20보 떨어진곳에는 노인단
을 조직적으로 맞이하고 간단한 영접식을 거행할 목적으로
십여명 일원이 예비 행사기, 사진기등을 세워서 놓고 있다. 노
인단이 나타나자 사진들을 찍은 다음 간단한 축하들이
어어단바 노인단 일행을 대접하여 단장 겸상진 씨가 축하
하시고 문화방송회사를 대접하여 김경석 부사장이 축하
하시느니라. 노인단 단원중에서 가장 고령하신 박병을선
씨가 축하하시었다. 박병을 선생은 자기 축하에서 기대에 어
기게 찬란하게 번영한 나의 원조들의 땅으로 처음 밟게 되니 더
무나 값게 무량하여 눈물이 목구멍을 막아 눈조류게 말 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야 비록서 나에게도 이렇게 으으
가는 조류어 었다. 이것과 나의 자함터라, 내가 리행해
야 할 정신적, 경제적, 나아가서는 정치적 소대라든것을 연수
하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처음 김도 공황을 보게된 노인단은
이렇게 큰 공황은 난생 처음보게 되었다. 그날 공황에
나온 신불라리오 기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서울 신불라리오 기자 들은 다

불인듯도 하였다. 후사가 없다는 것, 박병을 선생은 과거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하에서 일하시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하였는가에
는 질문에 거의 교육사업에 복귀하였다고 하였다.

노인단은 다음 김중석 부사장의 아내에 따라 밖으로 나오자
"소련 공화국 노인단을 축하한다"라는 표어가 달린 배너에 붙어
하고 서울로 행하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노인단은 서
울에서 "유명화포토" 호테루 18층에 유숙할 방들을 배정
받고 약 20분간 휴식한 다음 문화중앙방송사 최창룡 사장의
초청을 받고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목적으로 여의도로 행
하였다. 문화중앙방송사가 자리잡고 있는 여의도 등은 1950년도
에 북한이 남침하였을 당시까지 만하여도 영등포 비행장으로
유명하였으면 북한 민병대는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
하고 서울에서 3일간 만찬 경축회를 진행한다고 다식 할 것
을 도하하고 영등포 비행장을 점령한다고 수원으로 나가라
는 명령이 내린 다음 영등포 비행장을 결사의 전쟁판으로 하여
유방은 언변준비가 여기에서 결사의 끝이다. 그러나 금일에는
고층 건물들이 깎아내려서 관계를 어전의 유적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박선생의 행은 가장 고령하신 노인들 - 박병을, 한
득남, 강상호, - 세 분을 앞에 세우고 문화중앙방송사 회의실
에 도착하니, 회의실에는 벌써 백여 명의 인사들이 노인
단을 기다리고 있다가 박부로 환영하였다. 기다리고 있는
관공숙에는 대한민국의 김영춘 총리, 문화중앙방송사 사장
최창룡 선생, 대한 민국 통일장관 홍성철 선생들로 계시다
최창룡 선생이 축하연회 개최를 선언하자 제일 먼저 김영춘
총리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노인단을 아주 따뜻한 말남으로
열 열히 축하하였다. 선생은 아직 88 올림 팀즈가 서울에서
진행되기 전까지는 소련에 그렇게 많은 환영들이 살고 있

는지로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으나 1988⁸년에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다짐 우선 소련이란 나라를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한인들에게 대타협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우 물에 문화중앙방송사는 선생님을 초청하였다고



문화중앙방송사에서 박영을 선생은 자기의 경력에 대해 회의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시었다.

하시면서 이런 초성이 벌써 두번재라고 말씀 하시었다. 강홍리의 부탁은 이번이 호신걸음에 한국을 잘 구경하시고 소련에 돌아가 우리의 계통들에게 널리 소개해 달라 고 하였다. 강홍리의 축사가 없으면 다음 홍성철 장관의 축사도, 또 최창룡 사장의 따뜻한 축하 편설이 있었고 노인당을 대표하여 정상진 단장과 강상호 선생의 축사가 있었다.

다들 따뜻한 기풍속에서 상호축사들이 끝난 다음 강영훈 국무총리는 자기 직무와 성명을 새긴 손목시계를 노인단 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기타 많은 선물들을 전체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축하연설과 선물 증정식이 끝난 다음 강영훈 국무총리를 위무로한 한글지로서자들은 노인단 성원들과 한좌석에 앉아서 귀익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 식사과정에서 좌담회도 계속되었다. 전체 노인단 성원들은 하나도 비바람이 좌석에 닿는대로 차를 내리려 하면서 자리의 간담회정격과 감성을 간단히 발표하였던바 한등불 선생과 박성열 선생은 여기에서 또 감사의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특히 박성열은 자기의 발언에서 자기는 여러해 동안 북한에서 사임할 때 남한을 반대하는 수많은 강북-공작대원들을 준비하여 남한에 보내주는 하였으나 이렇게 자신이 직접 남한에 가서 열렬한 축하를 받으려 극까지로 자 고관들이 나를 만나 주리라 한 좌석에서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중과 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눈물감으로 눈물을 쏟았다. 바로 이때에 좌담에 앉아서 서울 특별시 검사되시는 분은 발언하기를 선생님님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간부들을 준비하여 남한에 보내주면 우리의 당리부성원들은 그분들을 잡노라고 많은 고성을 하였다고 하자 강네에 큰 웃음소리가 들리었다. 다음 검사는 제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서울에 몇일 있노라 하면, 이전에 선생님이 준비하여 파견한 북한측의 간부들은 만나볼수 있을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성열은 그 검사의 말씀을 농담으로만 인정하고 듣기를 거부하였다. 초원에서 노인단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은 서울시 각 신문들은 전면에서 크달라 돌리하여 발표하였으며 전체 노인단의 설명과 사진까지 크달라 게재하였다. 이후 하루가 지나서 서울에 천척이 많이 살고 있던 흥진과 선생의

(홍헌생은 전북한 "새 조선" 잡지 주필이였으며, 노련에 귀환후
노련 한인들이 중앙신문 "레닌기초"의 주필로 장기간 재했다)
친척들이- 사촌 형제 자매들이 약 십명이나 "콘테"호텔
룸에 연복 찾아 오곤하였다. 또 숙인들은 자기 친척을 아
는가하고 찾아와 애처로운 눈물흘리는 광경도 보았다.



사건은 박영돌 선생이 서울시 검사에게 자기가 강동
북위 원장으로 재설시 간부들을 어떻게 고양하였다는
경험을 이야기 하곤 있는 장면.

노련단 성원중에는 영노환분 강상호라고 부르는 분이 계
셨던바 이선생을 옥송벌 동행이 된다고 하시면서 찾아와
아주 친절하게 장시간 이야기 한 결과 그가 찾은
강상호는 그림시에도 북한에 계시는 최용건의 친척인 상
상호였다. 또 환분은 자기 부친 리영선을 모르는가 하고
찾아와 오래동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 하였던 바, 구이는
찾는어가 자기 부친이라고 하시면서 과거 신의주에서 홍성
반정부 사건을 조직한 책임으로 노련에 실려가 시비리
아 어느 지방에 계시리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선생은 롯데 호텔^{에서} 살고 있는 동안 느낀 것은 남한
 북을 하고 자유롭게 살기는 좋다고 하여도, 여기에도 진실로 평
 화롭게, 자유롭게 마음고생없이 살고 있는 후배같이 서울
 시민들 중에는 몇십년 전에 집을 떠난 아버지, 남편을 기다리
 며 밤이면 남몰래 배려없이 적체해 식을 어르 받고, 오래전
 에 죽은 부모님들의 소식을 몰라 길은 밤에로 집을 어루어 못
 하고 한숨에 한숨으로 밤새를 이틀도 안달라온것을 탈지 못했다.
 서울에 가서 계시는 동안 박선생에 있어서 제일 큰 사변은
 몇일전에 서울 김사가 말하러 그 말대로 강동 학교에서 준비
 하여 서울에 와 건한 학생이라 반났어였다.

하루는 저녁 10시가 되자 식당에서 어제 급한 식사하고
 돌아온 박선생은 좀더 잠이 없어서 평안히 휴식하려고 계획
 잡았다. 이것은 전종일, 한시간도 쉬사위 없어 여기, 거기 바
 쓰며 (실제) 실려 다니고, 또 대대로는 걸어도 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식사대절은 잘 받았으나 육중한 몸집을 가진 박
 선생은 매우 고달라졌다. 때문에 시간을 보아 아직 잘 시간은
 안되였으나 그날 저녁만은 좀더 잠이 휴식하러고 상의를 몽땅
 벗고 벌터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 송진파 선생하고 한 번에
 같이 재웠으나, 송선생은 옆방에 놀러 나가시고 한게선이
 데에 밤안에 배려라 울리였다. 송선생은 박선생을 끔뎁 식혀지
 말기위하여 열대를 갖이고 나가셨데, 이것은 틀림없이 다른
 손님이나, 할수없어 자리에서 일게 되었다. 문물 열고 침실
 에 손님을 들여 놓았으나 권태 기다리^안 손님어였으나, 먼명할에
 어디서가 만나볼 안목이 좋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박선생은
 자기 기억을 더듬고 있는 이때에 손님을 불어간 박선생을 끌어
 아느려 선생님과 소리칠면서 눈물로 흘렸다. 그 때에야
 머리에서 벗적 떠보르는 생각이, 다 이뿐이 강동합원 제유기
 생 심이철이라든 이름까지 누가 낼수 없었다. 박선생은 그

전쟁의 피호르인 잇는시기에 최우등생 미철이를 죽임의길, 서술
 로 작립하러 일을 생각하곤 더 다정히 끌어안고 만고 생사의
 끝에 만나서 그렸는지 잠시간 말로 훑하고 영현이 서었다라
 다시 말을 해며 의자들에 앉게 되었다. 그 안부를 묻는 인사라
 풍부림다음에 잔잔하게 불호르듯 흘러나오는 밤은님의 경말피
 석기고 눈물에 젖고 한숨이 석져 있다금 엄춧다가곤 다시 계록되
 는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그스님의 할마디, 한라디 생활호



박 병을 선생은 서울에서 7일 동안, 항상 자기와
 같이 한방에서 침묵하는 동진파 선생과 같이 동행
 하였다. 사진에서 뒤에 앉아 담화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각의 탄식이였다. 이윤간 박선생은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자
 의 어깨를 맞잡고 앉아서 도저히 말권이 허락하지 않는 일
 을 한 자기의 과거를 역시 회유치고 있었다. 그때 당시 소위
 혁명, 한반도의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려 3천 5백
 명의 공작대원들을 준비하여 88선을 넘겨보내었다. 혁명을 반
 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남한연민들은 북한에서와총한 공작대
 원들을 자기의 혈원지 원부로보내리 그들을 "공비"라고 부르는 이 나라

에 '인공적으로 공산주의를 권위하여 권 조현을 조속히 공산화하러'인
 그때 고정신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호혜'로
 "호혜"호혜 18층 16호 실제 앉아있는 박선생은 눈물겨운 안색
 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참 생각만 하여도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에 '행종 맹종 할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둔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북한은 북을 꿈 꾸고 있는가? 그 공산화 계획
 을 포기하였는가? 아니다. 아버지 당대에 소련이 북장함으로 북한
 의 권좌에 앉혀놓고 소련이 불신 양면으로 그렇게 돌아주고, 또
 중공이 그렇게 돌아주고 하여도 자기 흥취 49년 동안에도 실천
 못한 한반도의 공산화 계획은 "하루강아지 범무섭은 줄 모른다"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소위 "최고사령관이란" 군사 칭호를 넘겨 받고
 유라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북한군을 최대 팽창하라 북해 소

녀군 법까지 내어 해방포 부대들의 임무를 대략들에게 맡기고
 군물을 연라 하면서 소련에서 조덕적 1211을 당한 군부기재들
 을 다량 12대대 하여 끌어 들이지 않는가? 이것은 누구를 죽이려
 는 것인가? 참 생각만 하여도 기막힐 일이다

그 어느 날 저녁에 "호혜"호혜에서 박선생이 자기 제자 박 '만남장'
 12인은 전채 노인단 성원들이 북견하였다. 노인단 성원중 많은분들의
 전 북한 정부의 간부들이었다. 노인단 단장-전상전씨-전북한 문화
 선전성 차관, 강상호씨 전 북한 내부성 차관, 장학봉 전 북한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홍진화씨 전 북한 "새조선" 잡지사 사장
 박병용 선생-강동학원 원장, 심수철 전 조선인민군 간부중 부총장,
 저들 전부는 다 박선생과 같은 업장에서 그 장년의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기타 다른 성원들은 그 내막 세게를
 알지 못했다. 밤 늦음은 38선을 넘어온 이후 40여년 간 동안이,
 30년 동안은 보편성명하고 살다가 1982년에 남한 법원기
 관 안기부에 자숙하고 자기 위성행을 찾아가지고 일하면서
 산다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러면 30년간을 계속 북한을 위하여

북부라였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 자기는 20년간
 변명하고 연설의 북부에 대한 북부는 한 5년간 해냈다고 하
 였는데, 그나마 25년간은 북부와 연락을 끊고 혼자 단거리 살
 았다고 하였다. 북한 파견원들은 자기를 변절로, 남한 반기부는
 북한 소타이로 자기를 해치게 할수있지 때문에 항상 자리를
 옮겨가며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공산주의
 를 배반하고 살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서울에 김동학원 졸업
 생이 12만 명이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 12만 명
 있는 모양인데 정확히는 알수없다, 모두가 자기 모양으로
 살지, 상호간 만나지 않으며 무척은 과거에 대하여 말을 입
 밖에서 내지 않는다, 다부경우에 서로 못보는채, 또 안목이
 없는 채하고 지나간다고 하였다. 참그 당시 공산주의 허공안에
 걸어 나타나 긴 세월을 고생스럽고 부끄럽게 보내왔던채, 지금 와서
 배회리리하게 웃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은 현재에도 지상낙원이라고 허위 선전은 계속하니만시도
 현재 각 나라 경제 문화발전 수준에서 살고있는 나라가 한번
 12만 명에서 무리를 입었다고 하여 반가라니를 듣고 세계 각 나
 라에서 구제미를 받고, 자어는 조선에서 살고 있는 연인들에게서
 도 구제금 이백 루블리씩 받고 있으니 참 행포전은 예상 이상으로
 난치한 모양이다. 그런데 세계 각 잘살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그 나라의 사회제도의 역사발전 역행에도 있고, 또 다량위 백미를
 균량으로 감축어놓고 백성들을 굶게 한다느니 하는 실명으로 잘
 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무상으로 주려는 남한의 백미는 자기가
 "남한 연인들이 굶어 죽는다"는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기 때문
 에 각가지 조건부를 달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행포전이다. 벌써
 1960년대에 이르러서 북한 연인들은 말하기를 조선 연인들은
 제 시대에 어울리게는 궁핍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였다.

북한은 관광단원들에게 가져 "지상월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관광
 배치가 흥행하는 다섯구역 - 금강산, 백두산, 문명산, 만경대 와
 평양의 "천승방물관" 등을 정하였으려, 외국 손님들이 지방주민들과
 만나는것을 결이 엄격하고 있다. 간혹 관광객중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을 만나 볼기 위하여 가 보자고 하시면 그것은 결대로 안
 되고, 막이막 평양을 출발 직전 공항에서 약 30분간 이라나게
 하되하 그들의 출직인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은 인간 이하의 경
 제적 환경속에서 장극도 없어서, 절반은 굶어 죽어 살고 있다고 어구
 동성으로. 만사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굶주림과
 지어지 형편에서 허덕이는 북한인민은 해방 될것인가?

다음날 박선생 율행은 서울 특별시 고건 시장의 초청을 받고
 시 초청을 방문 하였다. 세계의 선진 경제수준을 목포를 하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라는 전인민적 지도 아래에서 경제기구
 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경제 기업소들은 물론, 그 와 동시에
 교육 문화기관, 체육기관, 신앙의 자유를 빼놓고 있는 교회들까지
 하나 더 나아가서는 과학당원들과 학생들까지 한국의 힘, 한국이
 영향을 전세계 인민들 앞에서 광채나게 시위하리라, 출기로운 걸음
 을 걷고 있는것을 직접 보여주려 하는가? 물론 북한이 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특별시는 북한 전체 인구의 반수 이상이며, 경제적인
 에서 볼때에 북한 전체 경제의 10배 이상 되는 조직된 인민의
 집단을 지도하는 고건 시장에게는 쓰러서온 노원단에게 이야기
 하여 줄것도 너무나 많고, 또 노원단 상원들이 들었으면 하는 점도 너
 무나 많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도 줄기잡아가
 면서 간단 간단히 말씀하여 주었다.

그것은 우선 서울시의 건설과 발전방향, 그의 문화성, 위생-생
 태학력 견지에서서의 서울시, 도시의 이, 인민 생활의 편리성 -
 그것은 시내의 각처에 있는 장라당들과 각종 상점망의 크고 적은

각종 상점들, 시내 쓰레기들을 제때 제때에 청소하며, 건물들을 제
 때에 수리하며 항상 새 면모를 나타내게 하는 일과 길가나 지하철도
 에 풍등을 밝힌 것은 거머지 들어 없게 하는 문제와 지철을 포함한 시내교
 통 개선에 대한 문제, 다음 끝으로 당시 성대히 준비하고 었은 서울
 시 6 백주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분조롭게 흘러 나오는 교건
 선생의 말뜻은 그 말말이라다 우리 전체 한인들의 자량이면
 념원이며, 열려있는 금지값어였다. 박영을 선생 말뜻은 서울시
 중에서 많은 선물들을 받아 받고 다시 베이스에 앉아 항상 서울로
 끌어 받고 세 비리를 최들고 그 영광하면서도 기력있는 자해를
 보이고 있는 그야말로 산술의 강산의 자량인 삼각산을 오른쪽
 으로 보이며 북쪽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복잡한 자기 생각에
 사투의 기묘의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 베이스는 응수신을 한눈에 달리
 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좌우에서 압력을 가하
 고 그리에 그리로 돌고 달리는 각종 자동차들의 무리 속에서 용행
 해방된 베이스는 한결 숨을 자유롭게 쉬는 듯이 (자유롭게) 푸른바다
 복판으로 운행스럽게 다가진 신장들로 소리없이 '리리리' 처 달리고
 있는 순간에 좌우 편에 새파랗게 자라 붙어 있는 원반형의 피들은
 바라보(가)도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그것은 복판에 있어서 큰 길역에
 놓여 있는 이런 개끗한 비밭을 반듯이 김달선(영심) 협동조합이나, 또
 백전 백방의 원리라 협동조합이요 하는 표 말들이 도로 좌우에 촘촘
 이 박혀 있어 협각들의 어복을 끌제하고 있으나, 여기는 왜 아무런
 풍어리, 표 말도 없는데 비들이 저렇게 무성할까? 그리고 여기의 농
 민의 집은 비밭이 단벽 밑까지 차지하는가 하면 마당은 15-20
 평 정도의 면적만 남기었으며,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큰길로 바로
 도로 현선까지 배비배바 하게 차지한 것을 볼 때 이곳 농민들은
 내 평방미터이 두지를 자기 집방안의 분들 면적과 같
 이 소중한 여기이며 각양은 것은 사실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12마 평방 미터의 땅이 가늘게 가서 죽어도 1 걸로 그 땅의
살을 주렁가, 또는 5-6 딸라를 죽기 대분이다. 그러면 북한 농민은
왜 그러지 않는가? 북한 농민은 공동농민에서 한 평방 미터의 땅을 더
죽우어 5 딸라의 리득을 더 내었다 하여도 자기에게 차라지는 리득은
일전도 아니리기 대분이다. 때문에 공동농민에서는 자기의 울렁이 땅
한 리득점이 낮은고로 일할하려는 욕심이 없는 관계이다. 노인단은
어느덧 벌써 출로망이 가로막고 있는 38선 파죽은 소재지 임진각 앞
마당에 도착하였다. 다적 38선 경비군 안에 군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노인단은 파죽군 속임자들이 허가를 뚫고 최창으로 서 반
비다 볼던 근처 농민들의 집에 들어간 4(1)라 보게 되었다.

농민들의 집들은 밤마다 훈기나는 가구들로써 가득차 있었던바,
침주간에는 밥질은 권기 자동로질가마로 부러 시각 2(1)라 감독, 간장독
쌀독, 고추냉이 절구독, 고춧장독등 심여개가 놓여 있는가 하면 온돌독,
항아리에 놓여 있는 가구잡에는 각종 크고 작은 식기들로 가득차 있었으
며 안방은 어룡방, 아이들방이 따로 있는 하류방은 우리함으로 들여다
보이는 의복장과 침구잡에는 의복과 침구들이 가득차 있었다. 집안에는
가구들과 의복들이 어찌지나 많이 걸쳐 있고 놓여 있는지기는 전혀 보지
지도 안았다. 좀더한 마당에는 자카용 승용차 한대 놓은 2(1)라 식
서고 있었고 또 걸레는 공간이 있었었던바 그 내부에는 여러가지
잡곡들을 넣은 가사야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가 하면 밖에는 말리
운 미역, 고사리, 해를 취서 말려온가지, 시래기, 말려온 댕게리까지 걸
여 있었다. 박병을 선생은 이런 살림사리는 50여년전에 한인토
이 소련 원동지방에서 살기있을 때에 본 어록 다시는 보지못하
였다 북한에서 12년간 살았으나 이렇게 사람직하게 보복하
게 사는 살림사리는 볼수 없었다. 북한의 농민은 형언할수없이
어렵게 살고 있기때문에 어떤 관광단이나 농민회 집도 볼수없게
조직하였다. 그리고 보통 농민들과의 만남을 절대 거절한다.

북한이 관광단의 비버스 쿨스는 고정불변한 방향 - 만경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평양 전용기념관 등이다. 때문에 어떤 협동조합에 공장 같은 것은 아무리 신형화하여도 볼 수 없다. 우연한 경우에, 관광단이 가는 도중에 수레로 인하여 다리가 파괴되었을시 그 주변에 있는 농가에 들어가 분 밑을 만만 몇분의 이야기들을 들은 후에 의하면, 대흥로 곁에 놓여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회철도 하고 창문도 수리하여 대강 건축 장은 하여 놓았으나 집안에 들어가면 험형 빈 빈방에 다 떨어진 이불이나 2-3 개 개여 놓은 것이 외에 아무것도, 입던 의복도 남 두랄 것이 몇가지 걸여 있는 뿐 새 의복이나 새 이불 따위는 전혀 없고, 우선 그것을 넣어둔 의복장이나 피혁도 없으며, 정주칸에는 쌀독이란 그릇에 잡곡이 몇 되 있을 뿐 광독이고 흰후장독, 간장독 같은 것은 전혀 없었으며, 곡간이란 것은 전혀 없으나, 밭디밭 그 안에는 한 호리 강대기 따진 곡물 버려진 쌀이나, 각 쟁이가 떨어져 있었을 뿐이더라 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노임을 못마지 할 것은 변변한 열여섯, 북한은 관광실원중에서 친척간의 만남을 요청하여도 다만 비행기가 떠나볼 시간을 할애하거나, 반시간을 여유로 두고 공항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선물은 접수해한다.

박선생은 이번 노인단 심원으로 남한에 와 보고서는 남북한의 정반대적 만일 경제 수준을 헤아려볼 수 없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의 독가리 행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개인소유냐, 그렇지 아니면 공동소유냐 하는 문제다. 박선생은 계속하여 북한의 후지개혁을 회상하였다. 처음에는 남의 땅을 억지로 나라 몰수하여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느 정도 수확고도 높이고, 소출에 따라 얼마의 리돈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협동화하면서 개인소유를 영영 열살시켜 공동소유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영민의 구황이 호적을 정작
하고 살았었는데 이러한 이들이 몽땅 호지소유권을 상실한
농촌정리 품타리 군이 되어버렸다. 이때로부터 농촌 농지비 단
일면적에 수출이 저하되고 국가의 공출량은 줄어들고 하니
영민들은 굶을 수밖에 없겠는가? 사람이란 땅 위에서 해
어나고, 땅의 전을 파먹고 땅으로 도라가는 법이로, 땅을 배
앗긴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려는가? 그 땅을 회복해왔던
일천만에 넘는 영민들은 지금 남한에 나와 다시 땅을 가꾸
고 있지 않은가? 참, 북한은 땅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마직 38선 경비부대 특별 호송부대의 군관들이 쓰지 안흔
자금을 리용하여 박헌영 일행은 바로 철조망 길에 북한
에서 월남하여 한국에 와서 살고있는 가족들의 집을 세워
놓은 "망배단"이란 비석을 보게 되었으며, 38선 철
조망 대물위에 기차가 통행하지 못하여 철도는 쫓밭이 되고
그와 병행이 그 길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첫날
부터 복잡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던 원로도 입전강 지류
를 건너놓은 인도고 자치 속과 판옥이 특성하여 판광 단원들
의 눈을 거슬리게 하여 흐른 마음의 잠기게 하였다.

"망배단"- 두고온 선조들의 산에, 러나러 북한을 바라보러
의례의 배리를 불리은 상"이란 말이다. 1천만에 넘는이산
가족들중 많은 부들은 두고온 선조들이 산에 가서 양끝 열고
절할수 없어 이 비석 앞 돌상위에서 제사 지내며 울고
돌아가는 여절 길은 비석에서서 많은 사람들은 땅면에
2-3번은 꼭 왔다 가 간다고 한다. 어디가나 한민들은 인
자라고 여절 길은 등방의 예의지극이란 말이 딱 맞는 4개의
사람들이다. 박병을 헌병은 원래 마음이 아파 어지러, 감각
이 미린 한 노연으로써 여기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였다.

박선생의 일행 - 노인단은 다시 버버섯 불라 들어, 그 예우
 한황목지가 20끼로, 50리 쪽으로 버림받 - 갈밭이 된 것을
 애우의 생각하여, 언제나 더 38선이 멀리있는가 하는 것을 생
 각하는 동안 벌써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판문점에 도착한
 박선생은 12년 동안이나 목숨을 내걸고 조국건설에 성의성
 의를 다하는 정신으로 그로동당과 김일성의 지시에 맹종맹동
 하던 정든 북한, 정은 평양을, 저북쪽에 었으리라고 인정
 하고 밭 뒤축을 돌아다니면서 쳐다보이 한길에 눈을 끼웠다.
 박선생은 북한에서 할수없이 떠났지만, 그 북한만은, 그 백성들
 은 언제든 맞을수있다. 시의의 시각이라도 김일성 가족의 독재
 가 물러진다면, 밭을 벗고서라도 풀밭을 뒤 돌아갈 사립이다.
 노인단 일행중에는 과거 1954-1956년경에 조공측 우석 대포를
 정전단 판을 지도하던 전북한 비무성 최관 강삼호 중장도
 계셨다. 강삼호는 자기가 여기에서 우석 대포를 일 할시작
 었은 우당한 비상 사고들에 대하여 노인단원들에게 이야
 기 하여 주면서 저 회의실 중앙에 놓인 큰상위에 너 다 할
 게 줄어 지나간 것은 바로 38선이라고 하면서, 회의 때 면
 북한 대포는 항상 저상 북쪽에 었고, 미국 대포는 법적으로
 상 남쪽에 었었다고 하면서 북쪽에 놓여있는 중앙부의 회관
 의자를 가르치며 자리가 그여자를 12년 동안 차지 한다고
 었었다고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정전단 판 회의장에서 나와
 경희 좋은 북쪽 언덕위에 어느옛날에 장엄하게 정어 놓은 판문
 각도 보고 무장하고 경비의무를 수행하는 북한이 연변군 화선사
 관관들도 가깝은 거리에서 맞서보았더라 그들은 노인단 일행을
 상담하듯이 었는 눈노리로 뺨자게 출리 보았다. 박선생 일행은
 정전협정 회의 서쪽편 재논은 고지에 올라가 개성, 해주 쪽을
 향하여 북한이 한들과 멀리 나을 프레 보이는 경지들라 농가들로

바라보며 흥얼거리며 가지고 각각 자기 의견들을 설명하였다. 21.
일행은 여기를 붙어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 서울 주변에
포착하자 분화중앙방송사 부사장 김중석씨의 의견에 의하여 서울의
보신항집에 들게 되었다. 박선생은 서울의 보신항 중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서 노련식 보신항, 평양식 보신항, 함경도식 보신항등에 대하여
김부사 장게 설명하였다. 그것은 평양식 보신항은, 향이 아니라 고추장을
들고 꼬린 국물이며, 고기는 칼로 잘라서 국물에 넣어 먹으며, 함경도
나, 노련식 보신항은, 진자 고기탕, 고기가 실이날 때 까지 삶아
서 뼈를 다추려낸 다음, 고기를 밥국으로 잘 붓는다음, 그것을 늘가락
으로 하여 국그릇에 담고 그 다음 기름진 국물을 그 위에 적당한
정도로 부어준다고 하였다. 그 외에 간, 허파, 갈비등을 가지고 개장회
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씹맛 좋은 술안주라고 설명하였다. 그
런데 서울의 보신항은 물고기만 따로 잘라서 익힌 간장에 찍어
서 술안주로 먹던 다음 순전한 고기국물을 밥에 비벼 먹으며 먹는
것이였다. 누구던 자기 그 향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고향 식의 식사라 제일이라고 할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노연단은 이것으로 저녁식사를 멋있게 하고 여자리에서 떠나
이산가족 협회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가게 되었다.
남한에 살고있는 이산가족협회는 그 부시들이 북한에 행정구역
회계를 조직하여 있으며, 각 도별을 남한에서 임명하는 도지사들이
있다고 한다. 노연단은 이산가족 대표들과 남한에서 이산가족성원
들이 남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어떤 형태로에서 살고있는가 하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박선생은 북한에 계시는 가족과 접촉하게 해서 이
한집 친척처럼 지내던 가족이 꼭 남한에 월남하였으랴라고
짐작하고 해당도 시 책 읽자들과 담화하여 그 가족의 력사를
알게 하였더니 그들은 월남하지 못하고 혼에 내려갈 운동
당 열성자들에게 매 맞으며 고생 뒤꿈에 잘 못하였다고 하였다.

22.

노인단 성원들중 이전 북한 출신분들은 각자들어 자기가 잘알고
 있던 분들의 소식이나 알려진 노력하였으나 그것을 알수없었으
 니까, 이상가족도 현재 북한의 소식은 잘모르고 지낸다고 하였다.
 기타 다른 성원들은 이상가족이란 무엇인지, 무엇때문에 고향을 떠나
 남한에왔는지를 모르리때문에 그들의 내막세계를 통역하게 들었다.
 이들은 단화과정에서 절대 다수 이상가족들은 호지나, 집이나
 모든 가정들까지 북송이라는 명목하에서 몰수당하곤 현재 남
 한에 와있으나 임시로 살아가는 행태는 남산은 대로 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떨어져 계시는 북도 친척들이 그립어 항상
 꿈에도 고향생각을 하고 있으려 또 어떤 분들은 산업이나 상업에 종사
 하리면서 남 북같이 양지 살고있으며 외국 여행을 종종 하고 있다
 고 하였다. 박선생이 혼자 생각으로 내린 결론은, 자기고향, 천여
 리는 북도 행세들을 리별하고 할수없어 도망쳐와 사는 태향에
 서 어렵은고난끝에 꾸준한 노력의 대가를 살기는 북한에 있
 을때보다 잘살고 있으나 만약에 자기가 살던 고향의 법도
 터기밖같은 법이긴 사회환경이 여기와 같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일까, 기본 생의 진리가 달라서 현재 여기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살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선생은 어렵게 생각함처럼 자기 현재 선세를 이단기
 중의 행태에 대조하여 보기도 하였다. 자기는 고향을 일제놈들에게
 빼앗기고 러시아로 망명한 한인, 흥행고향생각을 하리면서 고향
 산천의 정신, 한인들의 생활양식, 한인의 얼을 가슴깊이 품기고
 자식들에게 평행물준 박근만의 아들, 이를헤면 러시아의 한인
 2세로서 일제의 태광과 조선의 해방을 세상에 더없는 행복
 으로 인정하곤 북한에 단리와 무의 12년간 살면서 나라를 꾸려,
 거기서 늙어 죽으리리 결심한 저를 반당, 반일인 분과포함인 하곤
 북한에 추방하 11년사 자기여비를 잘사는 나라에 가라고 하였으니
 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도 비도덕적인 나라 정책일까?

23.

3만 5천리 길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날 형편에서 자기 여비로 가라하엿으나 무엇이냐 다 팔아 차돌들을 데려가지고 6명 식구가 8일간 반쯤 굶디면서 모스크바에까지 도착하였어. 288선을 열정히하여 남한에 나온 여남가족이나 대충 소개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에는 소련 정부의 방주로 사택을 배정받고 직업으로 선택하여 주었으니, 아이들은 계속 학교에 다니게 된것이다. 박성생은 그 당시 소련에서 그렇게 절수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생하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그 점도 동경양을 떠날시, 그 잔인 무르한 코등당과 김일성을 얼마나 원망하였던가? 아마 그날 리덕에 노연단을 접대하여준 전체 대표들도 현재까지도, 또 자기 고충에 귀환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원망하리라 생각하면서 다 뜻한 연사를 안고 헤어졌다.

박성생 일행 - 노인단은 다음날 베버스를 타고 조선반도리가 장 남항구, 대한민국의 두번째 도시, 부산항으로 항로를 잡게 되었다. 일행이 몸을 실은 ~~베버스~~ 특별베버스는 시골 - 부산만 고속도로로 속박하여도 배를 타고 1만 경항과 물줄기라고 앞으로 내달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의자를 흔들어서 승객들에게 잠을 팡겨 주었으나 처음은 고속도 차량으로구나 남한을 구경하고 있는 노인단은 아름답게 단장한 남한의 풍경, 높고 낮은 지형상에 바다보이도 크고 작은 농촌들과 장엄하게 일떠선 현대 새공업도시들이 먼달아 줄지어 갔가지로 시야를 제압하는 관계로 눈길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베버스는 당일 경주시까지 도착하였던바 이 도시로 옛날에 조선 백제 나라의 수도였다고 기드는 설명하였다. 이 도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골목" 호텔루에 박성생 일행은 자리잡게 되었었다. 호텔은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지형에 놓여있었다. 호텔 후면에는 아주 아름답게 생긴 큰 연못이 있는가 하니, 그 우에는 칠포, 화포, 혼성림으로 구성된 큰 공원으로 호텔을 둘러싸고 여러방 남쪽에는 놀다란 큰산이 보여 이 지방은 항상 화들어 없으하고 있는 듯도 하였다.

한니엘의 이야기 의하면 백제나라는 불화수준이 상당하늘은 나
 로서, 고구려 나라에게 패망당한후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불화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노인단은 이후 몇 여년
 아주 평안히 휴식한다음 그 어느날 아침에는 북반으로 향하는길
 에 포함 제철에 정거하여, 포함 조선노, "현대 자동차 공장등을
 구경하였다. 포함 제철은 세계 52개 나라들에서 원료를 실어다
 가 쇠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의 연간 생산량은 일본 삼능공장의
 그 수준에 접근하여 대체로는 그를 능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공장
 에서 생산되는 철판은 이어 포함 조선노에 넘어가 큰 배를 못은데적
 용되며, 또 일부 고급 철판들은 "철패" 자동차 공장에 넘어가 연변생활
 에 가장 필요한 용구까지 모델리 자동차 생산에 기본적으로 리
 용되나 하면 이외에도 기차 화물 및 여객 차량 제조, 지어는 각
 공 건물들이 집달라 가정의 냉장고 생산에까지 자리 불롤루가고 있
 다고 기사 잠은 설빙하였다.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박선생은 큰
 동자들의 생활 보장 형편에 대하여 답화하면서, 코동자들이 12월
 얼마씩 받게, 주휴보장은 어떻게 풍당 되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들이 12월 자리불 능력에 따라서 120-180만원까지 변다온것과. 주
 휴는 생산에 참가 연한에 따라 일대-일화제로 배정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자동차 생산과정을 주조, 단조, 조립 및 도색
 가공 기술행정을 구경할수있었언바 콰베아 의 길다관 행정에는
 조절공 12명(1인-1시)을 뽑어고 모른 가공 행정은 자동화원로
 베스들이 일해 있었다 특별히 건강에 유해로운 공정, 도색공정은
 전혀, 완전한 자동화 되어서 도색카메라에 들어가는것이 보이고, 다,
 도색이 끝나고 완전히 건조된 차체가 **나모**로 이제 다른 기술공정을
 통하여 나모는 조립품들을 순차적으로 레자리에 붙어고 바퀴까지
 달아놓으니 완제품이되어 콰베아 클에 나가서는 자기 절은 주
 우리 나가는것이였다. 이 공장에서 자동차의 총 생산량은 1년에

30-40 방대가 된다고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공장에서 4호로 길에 중앙 과학기술 설계부에 잠깐 동안 입회했다.

현재 과학기술부문의 날날이 아나고 때 시간 마다 악전하고 있는 사람의 흐름의 대양에서 금일에 신모형을 생산에 도입하면서 일년이후에 그를 대신할 새모형을 벌써 실험장에서 실험하기 하고서 그 생산기업소는 앞으로 발전의 확실성을 갖되듯 하고 하면서 공장 총기사는 중앙 과학기술 설계부에 대하여 그의 유래와 역사, 현재 활약하고 있는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함 다음 신형 모델 차들로 실험하는 실험장에 나가서 노인단 일행을 지켜들이 보임 비어쓰어 실은 단4번서 실험 시설들과 그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하며 죽어 노인들은 흥미있게 들었다.

노인단은 공장 근로자들이 준비하여 준 - 고급 유리 - 수경에 다 공장의 마크를 새긴 갑진 선물들을 감사히 받아가지고 다음 부산을 행하게 되었다. 노인단은 부산에서 일리로 떠나는 불고기 향, 불고기 회도 기름에 굵은 불고기 전함 불고기로 대접받아 그날 부산에서 겪은 저씨는 일행 잊을수 없는 기억을 남기게 되었다. 노인단은 점심이 끝난 다음 부산항에 나가 관산한 수도권선 위에 철리 마당화다를 의의 길게 바라 보았지만 너무나 노년에서 온 노인단을 보는데 라는 뜻이 하였다. 그러나 백성을 신생 일행은 의의 길은 부산의 앞바다, 허구본 에리다가 아들과, 내산갈이 일년 남편을 떠나는 안해, 모난이 행복할 꿈을 꾸던 허문련 처녀가 자기 실랑임을 할수없는 길로 보아면서 울린 눈물들은 부산항의 바다를 얼마나 더 보아야 족했는지 더나는 이들의 한숨을 얼마나 지어냈던가? 아, 불꽃처럼 그 옛날, 확실성은 없어스나, 그러나 어떤 날 적의만한 희망이라도 품고 눈물겨운 이 부산항을 어별하고 더난 이들, 영영 돌아오지도 못한 백이등포 100명 어나 되느냐? 아. 아! 령신 길은 부산항아! 좀 말하여 다구. 아니다 어찌

그 ¹⁴분이라? 조선인민의 원수, 일본 제국주의는 이 항구를 통하여
 하여 조선의 자원을, 조선 인민의 재산을 자기권처럼 수탈하여 갔
 으며, 전쟁 시기에는 청년들은 군대에 혹은 로력대원으로, 처녀들은 동
 원하여 일본놈의 군대를 위한 치방대로 보내었으며, 무엇이 조선의 것이
 라고 있었는가? 나라의 독립은 있었을 때 재물이나 물질 자원까지
 전부다 일본놈 들어 들어 주고 화지 유지 되었지. 그러나, 죽은 사나 우선
 자기 나라가 있어야 된단 말아야 하고 박정호 선생은 회를 차이며 다
 시한 번 두루먹을 출어 주며 분까지 역시 흠내었다. 박 선생은 계몽하며
 생각하기를 노연단이 여기까지, 한반도 ¹⁴맛이밖 끝까지 오게 되겠도
 오늘 우리 한인들이 자기 나라가 있는 데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한인들이 어디서 살던간 한바음으로 이 나라를 받들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는 목숨이라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부산 앞바다, 부산항을 내다보았다. 박 선생 일행은 고속 부산 시가지에
 일러선 현대형 대 건물들과 기업체들, 각종 상사 회사 등을 참관
 하고 부산 시가를 벗어나 고속 자동차 길에 나서게 되었다. 고속으로
 이끄러져 달리고 있는 현대식 고급비하츠에 몸을 실은 노연단 일행
 은 그럴게도 역사 길고 전설적인 부산시를 임시에 도착하며 접
 심 식사클하고, 말하고 걸구경하듯이 불어 두시간 동안 지체 않는다.
 그를 리별하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웠다. 참, 부산시는
 과거에는 불쌍한 한인들의 피눈물의 역사에 진부되어 있었다면, 문
 제로 불어 해방된 오늘에는 세계 경제 발전 궤도에 밀음직하
 게 올라 갔다. 걸지 않은 1900 년에는 세계의 십일번 도시
 부재의 나라가 될 후대를 두고 활동하는 경제 1번대로 유명
 하여 지금 십년이 세계를 행하여 걸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는가?
 참 이 것이 한국인들의 거름이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책이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차 양에 설치된 라디오로 불어 잔잔하고
 부드럽게 흘러 나오는 한인들의 행곡은, 소련 직언에 자기 성격
 가 제몸에 더 잘맞게 나타낸다고, 귀를 통하여 온몸에 갖다

들어 심장을 만져주고 있었으며, 평담하게 웃고 있는 자를 만난
 아 계속 되든 다음 노래가 그전 것보다 더 재치가 있어 눈감로 없었다
 박병을 선생 일행은 남한에 도착한 5일 동안 보고, 듣고, 먹고 산
 모든 것을 총괄하여 보아서 자기들이 소련에서 상상하고 있던 그
 우류의 한계를 훨씬 능가한, 이것이 한민족의 생활 전모이며
 한민 생활의 진미라고 결론하면서 한편으로, 레나라, 레판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생각하기
 를 우리는 비교적 레나라에서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레나라 즉
 한민 나라 문덕으로 후천의 화양에서 살면서도 자리스코들의
 고향에 봐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자!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한 일인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만하의 먹혀 있을 때, 우리
 들을 누가 생각하여주었는가? 감화주었는가? 소련 원정에서 살다가
 무라와 같이 화물차에 실려 공하시야에 갈 때, 무슨 연생의 가치
 치가 있었는가? 때문에, 이번 소련 노인단에 대한 관광 조격은
 한 입으로 다 들은 할 수 없는 대한 민족 정부의 배려이고, 문화공민
 (배려 입문) 방송회사의 배려임을 소련 전체 한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리듯 하며, 한민들에게는 어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알려야 되겠고 노인단 전원은 생각 하였다.

노인단을 실은 고속버스는 어찌나 비탈리 달렸던지 벌써
 저녁 8시에 서울에 도착하여 휴식하고 그 이튿날은 6월 25일
 - 동쪽 상륙이 개시된 45주년이었다. 노인단 일행은 국영 묘지에
 도착하여 남한에서는 어렵게 이 밤에 후보회를 진행 하도록 일
 제리였으며, 노인단 일행은 소련의 대표로 함단 앞에 접근
 하여 분행하고 북으로 돌아가신 이들에게 원사를 돌리었다
 노인단은 이 국영 묘지에서 얼마나 많은 한민 애국 열사들이 국
 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건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위다.
 세상 떠난 어찌리여 알지 못하였더라를 알게 되었다. 안치

되어 있는 애국 열사들의 묘지들 중에는 소련 크를몰르다 공동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지로 있었다. 만내원의 설 명에 의하면 애국 열사 부분적 분들은 조국의 해방 전에 한 형에서 열세하여 그지라에 안치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들 전부를 서울 국립묘지에 옮겨올 예정이다. 현재 여기에는 그분들이 상경 묘지가 자리를 잡히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단은 모퉁이 연원철원 방항으로 향하여 28년에 접근한다. 철교방으로 앞에 두고 중일 자대 어남에서 연인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하고 있는 한국 연 함부대 "백골부대"로 남침시에 가장 강력한 저항을 기하리면서 연인 군에게 약에 한 논설을 권, 그야 말, 그대로 "백골부대" 에 수침받아가 점심 식사로 같아한다. 연함부대 사단장, 이사단은 다른 사단보다 한급 높은 사단으로 연함부대 장은 남의 막 40에 되어 보이는 행동한 공장이었다. 사단장의 말 씩에 의하면, 사단은 38 분계선을 수비하는 부대들로써 북한 이 배선적으로 0.25 대와 같이 침범 할시에는 최 희생물로 될수 없는부대라 한다면서, 자기 관하부대들은 어떠한 공격도 목격하지 않기 때문에 장갑 단코 부대나 기동부대들은 비속되어 있 지 않다고 하면서 조선 반도의 평화를 연원히면서 휴전분계 선의 안전을 수비할분부어라고 하였다. 그 방면에 북한은 어휴 전 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기동 연함부대들을 배치하고 있 는지하면 세련은 공크레트 장벽 밑으로 산혈을 따라서 벽골에 흥행용 대 혼혈을 쥐고 그를 통과하여 대기계화 부대들을 리 용하여 또다시 남한리 점령을 꿈꾸고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자기들은 북침은 절대로 목격하지 않으나 기동성 있는 방어를 위하여 일부로 쉬지 않고 사병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단은 38 휴전 계선까지 가던 모든 길에서 세로운 들녘을 자랑하고 있는 농지들과 보리밭과 아담하게 꾸려 놓은 농가들을

연속 바라 보면서 서울 이남이나 서울 어북도 똑같이 한가지로
 과유불급 평화로운 생활의 보람이 윤택스럽고 농촌에서, 도시에서
 한가지로 즐기롭게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노련에서 내로한 노련단은 바로 그날 저녁에 문화중앙방송
 회사 사람 최항봉 선생이 마련하여준 농촌일명회에서 회사전
 체성원들의 작별은 화려한 회관에서 남한에서도 알음 알음
 등과 같이 지내었지만 섭섭한 장미분위기로 감출수 없었다. 장
 미에서부터 서로 연호장도 주고 주노로 서쪽편에서 노련의 도시로
 1번 꼭 정화대로 하시고 집에 찾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따
 뜻한 약속을 작별연사들을 하면서 헤어졌다.

6월 26 일날 아침, 바로 노련으로 출발하는 날이었다.
 여러 지역까지 그렇게 좋은 날씨가 베풀림이여 어울비를 잔잔
 히 내리고 있었다. 날씨는 똑같이 박병을 선생이 서울과
 작별하는 것을 통하여 눈물 흘리듯 싶었다. 사실 노련단이
 (한 일행이) 한바버스가 한강다리를 건너시 라지오로 물리든 노
 리로, 그에 보조 맞게 물을 뿜어주는 일기로 노련단의 많은 분들의
 눈물을 분사하게 하였었다. 그중 다 대우 분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의하여 이루어진 첫번이라 맞이 막 행복의 시각
 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여기었기 때부터였다.

박병을 선생은 이 해에, 1991년에 이전에 북한에서 사업
 할시 담공에서 같이 일하던, 최후 강동학원 출신 제자의 초청을
 받아 일본 동경 구경도 하시고, 1993년에는 남한에서 사업
 분야에서 많이 활약하시는 여권 북한 친구의 초청을 받아
 약 1개월이나 휴식하는 동안 경주시에서 멀리 안동까지
 유서 깊은 불국사에 가서 선조들의 눈치에서 제사까지
 지내시었다고 하시었다. 박선생은 그당시에 80세도 넘버
 서진 연노환 분이였으나 하루 등장이 민첩한 건강 분이였다.

박병을 선생은 1991년 정월에 모스크바에서 조직된
조국 민족통일 구국 전선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그의 중
앙 상임위원으로 선거 되어 현재까지도 모스크바지
역에서 전행 조직되고 있는 구국전선 사업에는 한 번도 허하
짐 없이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에는 소련의 려바에서 처음으로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 특별원사로서, 구국전선 총고문으로 계시는 허진선
생의 해외 주선에 의하여 모스크바 시에 한인 학교가 개교 되었다.
박병을 선생은 이 학교에 종종 나가 학생들과 교직원
들과 만나 정기간 자기의 생활에서 체험한 경험 등을
하여 주고,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군한다.



소련에서 오신 노인단이 부산에 도착하여 점심식사
를 하고 있는 장면. 박병을 선생은 점심부에 앉았다.

1995년 10월 25일 광학봉.